

# 市·道 추석 연휴 코로나 특별방역 강화

## 관·경 합동점검반, 10월3일까지 음식점·카페 등 방역 점검 공무원·의료진 등 5개 운영실무반 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추석 연휴 이동과 모임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감염병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방역 점검은 식품 안전 관련 공무원과 경찰교통대로 구성된 10개반 21명의 관·경 합동점검반이 오는 10월3일 까지 여과 터미널, 변화가 주변 음식점·카페·유흥 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적 모임 준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관리 ▲테이블 간 거리두기 ▲영업 제한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생활치료센터 특별운영대책을 추진해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소방학교 생활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기숙사 등 2곳에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운영한 제1호 생활치료 센터를 포함해 이날 기준 확진자 1천692명이 입소해 1천552명이 완치 퇴소했으며, 현재 140명이 입소 치료 중에 있다.

시는 안전정책관을 총괄 단장으로 각 센터별 공무원, 의료진 등 5개 운영 실무반을 편성,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며 확진자 입소부터 퇴소 시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각 센터별로 입소자에 대해 생필품 구호키트·음식·택배 및 기타 민원처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시설 내외부 방역·소독·청소, 의료폐기물 처리를 실시하고 확진자 대상 매일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수시로 확진자의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 위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경찰지구대, 협력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상주 근무, 건강이 상유무 확인,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을 이어간다.

전남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코로나19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비상방역 대책본부를 24시간 유지하고, 도내 코로나19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유사시 신속대응반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지원한다.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내 KTX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8개소에 설치하고, 개소당 10여명의 보건인력이 상주하면서 무료 진단검사를 한다.

광주·전남 공동 감염병 전담병원 8개소와 전남 생활치료센터 2개소도 상시 운영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방지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 추석을 맞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타지역 방문 전후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송지·임후성기자



김지사 추석대목 무안일로 전통시장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둔 16일 오후 무안군 일로읍 일로전통시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사랑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여수시 “경도 레지던스 계획대로 준공돼야”

여수시가 경도 해양관광단지에서 추진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두고 시의회가 국정감사를 건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일자 “계획대로 준공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한 시기로 당초 계획된 2024년까지 준공되어야 한다”며 “시의회가 제기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철회, 신원-경도 간 교량 예산 감액,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이 진행되면 경도 개발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여수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문제는 지난 5월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개정돼 분양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어 “타워형 레지던스는 전남도 건축관광동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경도 개발은 여수 관광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개발 과정에서 여수 지역 기업, 업체, 장비 우선 참여, 운영 시 지역 인재 우선 고용, 지역업체 우선 입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2024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여수의 대표적인 섬 관광 사례로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전남도와 광안만관광재단유구역청, 미래에셋 등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고 경도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이미 여수지역에 많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는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여수시민들의 뜻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미래에셋이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대경도 일원 2.15㎢ 부지에 2024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콘도, 테마파크,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센터, 마리나 등 관광테마시설과 5성급 호텔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기자

## 김지사 “태풍 피해 최소화 철저 대비”

해안가·섬·배수시설 사전조치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14호 태풍 ‘찬투’ 대처상황 보고회를 열어 “태풍 진로가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우려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태풍 ‘찬투’는 이날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해 17일 아침 서귀포 동쪽 약 5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은 16일 밤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특히 남해안에 최대 순간풍속 3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현재 기준 최대 순간풍속 여수 24.4m/s, 완도 19.4m/s 등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로, 해안가와 섬 지역 강풍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며 “만조 시기에 배수장이 잘 가동하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저지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 위험예상지역 주민 사전 대피 ▲침수 위험 저지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출입 통제 ▲노후 저수지 전담공무원 지정 예찰활동 ▲소형어선 육지 인양 및 중형어선 피항 ▲농작물 조기 수확 ▲전복, 새꼬막 등 수산물 조기 출하 등을 지시했다.

지난 8일부터 초기 대응단계를 운영한 전남도는 15일 오전 11시부터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11개 시군의 상황관리 단계를 비상1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각 시·군 공무원 822명이 태풍 상황관리, 피해사태 파악 등을 위해 비상근무 중으로, 태풍특보 발표 즉시 비상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임후성기자

## 광주시,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 추석 전 79% 지급

광주시는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업계를 위한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을 16일 346개 여행업체에 1차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 여행업체 437개의 79%에 해당된다.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 등록된 일반·국외·국내여행업체이며, 업체별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1차 지급은 6일부터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347개 업체에 4억3천7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신청한 업체의 76%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등 간편한 비대면 신청이 효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관할 자치구 방문 등을 통한 추가 신청을 받고, 지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유선·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광주

시 관광진흥과(062-613-3642) 또는 5개 자치구 관광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행기자

## 윤병태 정무부지사 사직서 제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16일 사직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윤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나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지사는 이날 “고민 끝에 고향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내년 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 등 마지막까지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 출신인 윤 부지사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김재정기자

천년의빛 영광  
Glory Yeonggwang

년

영광 모싯잎송편

먹을때가 제일 예뻐!